

제목: 2011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와 KDI는 9.19(월) 「2011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공동 개최
 - * '10.2월 1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개최('10.2.4~5)이후 두 번째 개최
- 동 포럼은 현오석 KDI 원장의 개회사와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 OECD 등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국·내외 서비스산업 전문가 25여명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 세계경제는 아이디어와 창조성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 경제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무한경쟁, SNS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경제화,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복합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이 이러한 변화의 트렌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
 -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최근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OECD 주요 국가들 및 제조업과 비교시 생산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진입 및 영업규제의 개선과 함께 연구 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 주제발표 및 토론세션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총 12편 (해외전문가 및 경제학자 9편, 국내 전문가 3편)의 논문과 정책 사례가 발표·토론됨
 -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과 생산성 제고 방안,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적

흐름과 도전과제,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 전망, 창조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최근 서비스산업에서의 주요 관심 분야를 포괄

- Ali Hortacsu(Chicago대 교수)는 「정보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 정보기술(IT)의 발전은 과정혁신(통신·협력비용 감소), 생산혁신, 경쟁 및 시장구조 변화 등의 메카니즘을 통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실증 분석을 제시
- 제1세션(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과 생산성 제고)에서 Chiara Criscuolo(OECD 선임이코노미스트)는
 - 과학기술분야에의 국제공조 강화와 기초기술의 특허화 제고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 R&D 활성화를 강조
- 제2세션(의료관광 산업의 국제적 흐름과 도전과제)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섭교수가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례를 설명하면서
 -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 정보(가격·기술) 공개 확대와 해외 인력 채용을 통한 의료관광 산업인력의 국제화 필요성 등을 제시
- 제3세션(사회서비스 산업 발전과 전망)에서 마이클 우즈(호주 생산성위원회 부위원장)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
- 제4세션(창조산업의 현황과 미래에의 준비)에서 영국의 트레이시 그레고리* 연구위원은 영국 창조산업의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 영국의 대표적인 창조산업 컨설팅기업인 톰 플래밍사의 선임컨설턴트

** 영국 창조산업은 '1998년 이후 지속적인 정책지원으로 인해 2007년 영국 GVA(Gross Value Added)기준 6.4%를 차지(570억 파운드에 해당)

- 창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에 바탕을 둔 혁신역량

제고,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마련,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번 포럼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길 기대

참고1: 2011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세부일정

참고2: 발제문 주요 내용

참고1

2011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9.19 (월)	09:00~09:05	▪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김주훈 부원장 대독)
	09:05~09:10	▪ 축사 (기획재정부 차관)
	09:10~09:50	▪ 사회: 이승훈 (서울대 명예 교수) - 기조연설I(오전): 알리 호르타슈(미국 시카고대 교수) “정보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세션 I 10:10~11:40	제1세션: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과 생산성 제고 ▪ 사회 : 송병락 (전 서울대 부총장) · 발제1: 제임스 본드 (호주 금융서비스산업협회수석연구원) “신경제를 위한 정책과제: 서비스의 무역, 생산성 및 R&D” · 발제2: 안상훈(World Bank IEG 자문위원) “국제통계를 이용한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 · 발제3: 아이린 라우 (홍콩 상공회의소 수석컨설턴트) “지적자본과 서비스산업의 성장: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자 · 송영관 (KDI 연구위원), 문우식(서울대 교수), 알리 호르타슈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특별세션 11:40~12:10	특별세션: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1 ▪ 사회 : 송병락 (전 서울대 부총장) · 발제: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지식경제에서의 혁신과 성장”
	세션 II 13:00~14:40	제2세션: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적 흐름과 도전과제 ▪ 사회: 좌승희(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 발제1: 산무감(마드라스 School of Economics 교수) “인도의 의료관광 현황과 정책과제” · 발제2: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 발제3: 솜킵 탕기트바니크 (태국발전연구원 부원장) “의료허브로서의 비용과 편익: 태국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자 · 최건(우리들 병원 원장), 권용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기택(경희대학교 교수)

9.19 (월)	<p>세션 III 14:50 ~ 16: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세션: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 전망 - 간병, 보육 등 민간부문의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 좌장: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 · 발제1: 마이크 우즈 (호주 생산성위원회 부위원장) “호주 고령화 사회에서의 서비스 전달” · 발제2: 김현숙 (송실대 교수) “한국 보육/육아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희숙 (KDI 연구위원),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p>세션 IV 16:10 ~ 17: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세션: 창조산업의 현황과 미래에의 준비 ▪ 사회: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발제1: 트레이시 그레고리 (Tom Fleming 창조컨설팅 선임컨설턴트) “창조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발제2: 박성훈 (BCG 파트너) “세계화 3.0시대- 문화 및 창조산업의 역할” · 발제3: 심정훈 (월트디즈니 컴패니코리아 상무) “창조산업에서의 원소스 멀티유즈의 미래“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혁(고려대 교수), 김지환(Cocaban 대표), 장우현 (KDI 부 연구위원)
	<p>17:50~18:00</p>	<p>종합 토론</p>

기조연설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of Service Industries : Some Observations”

정보기술(IT)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현실 사례를 중심으로

알리 호르타슈 시카고대학교 교수

- 정보기술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거시적 실증분석과 더불어, 과정 혁신, 생산 혁신, 경쟁/시장 구조 등 생산성의 세 가지 미시적 메커니즘에 기반한 정보기술이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효과를 분석
- IT의 발전 및 활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존재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 또는 산업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 예를 들어 조르겐손 등(20087)은, 2000~06년 미국 경제성장의 38%가 IT 분야의 자본 축적과 IT 생산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밝힘
 - 또한 1995년 이래 EU의 ICT(정보통신기술)분야 투자나 고기술인력의 활용 등이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국보다 연평균 1.5%p 정도 뒤쳐져 이러한 차이가 두 대륙간 경제성장 격차의 많은 부분을 설명
 - 브린졸프손 등(2009)은 IT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과 집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산업 간의 총이윤이 1990년대 중반이후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
- 미시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한 경우에도 IT와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 예를 들어 가리카노와 히튼(2010)은 IT투자가 특정 조직형태 또는 경영기법 등과 결합할 때 그 조직의 생산성을 명확히 향상시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힘
 - 특히 바스커(2011)는 소매점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도입한 것이 1972~82년 기간 중 노동생산성을 4.5% 향상시켰다고 분석
 - IT는 또한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더욱 경쟁적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보였음
-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경우, 개인의 인터넷 접속률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지만 증가추세는 둔화
- 반면,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침체기를 거친 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2009년에는 90% 이상의 사업체가 인터넷에 접속된 상황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으로 고전 중이지만, 생산성의 증가 추세는 산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 특히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산업(금융·보험 등)이나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분야(보건사회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짐
- 반면 IT 분야 자체는 생산성의 증가가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성 증가를 밀치고 있어, 향후 한국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존재
- 2010년 한국 서비스산업의 전반적 생산성은 2005년을 기준(=100)으로 할 때 122로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금융·보험 분야로, 2010년 생산성이 155에 달함
 - 이에 못지않게 생산성 증가가 진행된 분야는 보건·사회서비스분야로, 금융·보험 분야와 거의 유사한 생산성 증가추세를 보임
-

- 반면 2005년 이전 높은 생산성 증가추세를 보였던 IT부문은 2005년 이후 생산성 증가가 지체되며, 도소매부문보다도 부진한 모습
 - 음식숙박업은 전시대에 걸쳐 가장 생산성 증가가 낮은 부문으로, IT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이 이러한 지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IT의 도입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IT의 도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 일례로 한국의 서점은 1997년 5,407개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1,825개로 감소
 - 이러한 감소에는 인터넷 서점의 출현으로 인한 영향이 존재하는 한편, 기존 서점 중 운영관리 시스템을 IT화한 일부 서점들이 대형화를 거듭하며 진화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실증 연구가 IT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지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IT의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
- 과정 혁신은 통신 및 협력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생산 혁신은 상품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IT의 효과 발생
 - 경쟁/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나 소비자 측면에서도 정보기술이 혁신적 기술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IT의 활용 여부가 생산성 증가와 직결되는 한편, IT 분야 자체의 생산성은 정체상태로 접어들고 있어, 향후 한국 경제 및 서비스산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 분야에서의 다이내믹스를 제고시킬 필요

제1세션. 서비스산업의 혁신활동과 생산성 제고

“Policies for a New Economy: Productivity, Innovation and Trade in Services” 신경제를 위한 정책과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무역, 생산성 및 R&D

제임스 본드 호주 금융서비스산업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 최근 서비스 산업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슈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정책의사결정의 근간은 제조업, 광업 및 농업 등에 치중되어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주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GDP 성장에 가장 큰 기여요인인 서비스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
 - 호주의 사례를 볼 때 일반 대중의 저조한 인식,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등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모색
 - 호주의 서비스산업은 전 국가 산업의 부가가치 대비 80%, 전체 고용 대비 85%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큰 중요성을 가짐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자유화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생산성 증가 효과와 이를 통한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분석
- 우선 서비스산업의 정책추진시 (i) 제도와 규제 개선, (ii) 기업 측면에서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iii) 혁신, (iv) 교육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서비스산업은 범세계적으로 점차 그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호주 경제는 이러한 특성을 보다 확연히 나타내고 있음
 - 호주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약도가 매우 높은 경제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기여도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이를 수치로 뒷받침
- 서비스산업으로의 집중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정책입안자 및 산업계 대표 등이 인식할 필요

-
- 서비스산업은 금융부문의 비약적 발전, 지식 확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외연적 성장, 운송서비스의 기술 향상,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으로 인해 점차 그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음

 - 특히 서비스 무역자유화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호주 경제의 생산성 향상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산업의 무역 자유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아시아 지역펀드 (Asia Region Funds Passport)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 해소, 지역 시장 확대는 물론, 소비자 선택의 확대 및 경쟁 촉진, 운영 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

 -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한데, 호주는 서비스 무역에 대해 세분화된 통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

 - 호주 통계청은 70여개 항목으로 분류된 서비스 수출 통계와 7,000개 가까운 상품 품목에 대한 수출 통계를 작성 및 유지

 - 서비스업에 대한 잘못된 통계는,
 - (i) 사업 환경의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 (ii) 서비스업에 대한 경제학자의 분석 오류 초래,
 - (iii) 무역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기초자료 부족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므로 유의할 필요
-

스페셜세션. OECD STI Scoreboard 2011

“Innovation and Growth in Knowledge economies” 지식경제에서의 혁신과 성장

키아라 크리스쿠올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매우 이례적인 도전에 봉착했으며 경기침체, 국가채무 급증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글로벌 당면 과제의 효율적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결정요인인 혁신을 통해 각국은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국가 간의 경쟁이 선진국의 세계 지배력을 잠식하고, 기존 성장모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 대비 시스템 구축 등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
- OECD가 수행한 2011년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의 결과와 관련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지식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
 - 2011년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는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의 혁신, R&D 등을 수치적으로 접근해 분석한 결과를 포괄적으로 논의
-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공조 확대와 기초과학에 대한 특허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 R&D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국의 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 R&D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과학 분야 국제협력도 그 성과 및 영향력 측면에서 미흡
 - 그러나 R&D 지출 및 민간 R&D에 대한 정부 지원은 OECD 상위권으로 평가됨
 - 특허 수준의 경우 ICT나 생명공학, 나노 분야 등에 있어서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에너지 발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
 - 특허질적지수(Patent Quality Index)를 살펴보면 기초통신, 디지털 통신, 전자기계류, 오디오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2세션.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적 흐름과 도전 과제

“Medical Tourism in India: Progres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인도의 의료관광 현황과 정책과제

산무감 인도 마드라스 경제대학교 교수

- 인도의 의료관광은 최근 서비스 수출 성장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급속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의료관광의 성장은 의료수가 증가, 높은 보험 프리미엄, 선진국 환자들의 자국 대기시간 증가에 기인함
 - 고품질의 건강서비스, 선진국의 인터넷 및 통신 채널 확충, 항공료 인하 등으로 해외 의료관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급부상한 인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지역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의료서비스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진료를 위해 인도를 찾는 의료관광객의 수는 2006년 52만 명에서 2009년 6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도 각각 5억9천만 불에서 7억5천만 불로 증가함
- 2015년의 경우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가정할 때 인도를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12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입은 13억 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 20%의 증가를 가정하였을 경우, 의료관광객 수는 2백만 명, 의료관광 수입은 23억 불에 육박
- 인도의 의료관광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원인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외부적으로 선진국들의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와 선진국 내 높은 의료비와 긴 진료대기 시간 등에 대한 불만을 들 수 있음

-
- 내부적으로 인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심장수술, 장기 이식, 안과 수술 등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반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저렴

* 인도는 JCI 인증을 받은 병원이 16개에 달함(한국은 10개로 싱가포르 13개, 태국 15개에도 미치지 못함)

□ 향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선진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영국 및 캐나다 등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 의료치료와 고급관광이 병행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 항공교통수단의 발달로 해외 여행 비용 감소
- 신흥개도국의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미비로 해외 수요 증가

□ 반면 인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들의 극복 여부가 인도가 의료관광지의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를 평가할 것

- 정부의 강력한 지원 부족
-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위해 필요한 항공사, 호텔, 병원 등의 협조 관계 구축 미비
- 병원에 대한 인증제도와 규제 제도 정비 필요
-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
- 의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 해외 의료관광객에 대한 의료보험 체계 부족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Promoting Medical Tourism- The Case of Singapore”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 2009년 IMD 기준, 세계 4위, 아시아 1위의 의료 기반시설을 갖춘 싱가폴은 아시아의 의료 관광 허브 위상을 확립함
 - 싱가포르 의료관광 산업 성장은 고품질 저비용의 의료서비스에 기인
- 싱가폴 의료 관광 산업의 고품질 저비용 구조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이끌어낸 결과물임
 - 싱가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공공 병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의료비용을 규제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의료 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연계된 대행사를 통해 의료 관광 홍보
 - 의료 관광객 및 지역민들이 자신의 재정 능력과 필요에 적합한 병원 및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자기부담 원칙에 기초한 3M(Medisave, Medishield, Medifund) 시스템을 통한 의료보장 비용 급증 억제
 - 새로운 의료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병원과 민간 병원 간의 경쟁
 - 외국 의료 면허 인정을 통한 인력구조의 국제화
- 한국은 의료 기술 및 가격 측면의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함
 - 객관적인 의료 비용 정보 부족 해소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의료 관광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 정보를 다양한 병원들이 제공해야 함
 - 또한 해외 의료 인력 채용을 통해 의료 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3세션. 사회 서비스산업의 발전 전망

“Service Delivery to Australia's Aging Society”

호주 고령화 사회에서의 서비스 전달

마이클 우즈 호주 생산성위원회 부위원장

- 최근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고령화 관련 서비스 수요의 증가, 경제 성장 동력의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됨
 - 호주의 고령화 의료 시스템이 내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정책이 필요
-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고령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의 중요성을 분석
 - 정부의 의료 서비스업계 참여는 형평성 제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취약한 계층 보호,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상적인 고령화 의료 시스템은
 - 노인들의 독립성과 건강 증진, 사람 중심의 서비스, 품위와 존경이 내재된 의료 서비스 공급,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손쉬운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임

“Child Care Industry in Korea”
한국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현숙 송실대학교 교수

- 한국 보육산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 개선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계획의 실적 또한 거의 미미한 상황
 - 정부는 보육산업 서비스 공급자에게 차등보육료 형태의 수요자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노력
 - 지난 10년간 보육서비스 관련 정부예산은 평균 매년 20% 이상 증가, 보육시설의 수나 보육서비스 수혜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
-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보편적인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됨으로써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만 제공되는 영유아 보육 정책방향의 왜곡 발생
 - 영아의 기본보육료는 소득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제공
 - 보다 보편적인 교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만 제공
-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 보육사업 공급업자의 진입장벽 해소, 보육료 자율화를 통한 시장 가격 기능 회복
 - 평가인증제도 내실화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및 정부 보조금 제공 여부와 그 결과 간의 연계방안 모색
 - 시범 운영 중인 공공형과 자율형 어린이집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과 정부지원 기능이 혼합된 한국형 보육산업 구조 확립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제4세션. 창조산업의 현황과 미래에의 준비

“What Next for the Creative Economy – International Lessons and Guidelines for the Future” 창조경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범세계적 교훈과 미래에 대한 가이드라인

트레이시 그레고리 톰 플래밍 창조컨설팅 선임 컨설턴트

- (창조산업의 정의) 1998년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 TF를 통해 창조산업 개념을 정립
 - 창조산업은 개인의 창의성 및 기술과 재능에 그 기원을 두는 산업으로서 지적 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통해 소득과 고용을 이끌어 낼 잠재력을 가진 제반 산업을 의미
 - 창조산업에 속하는 산업을 13개 세부분류로 체계화하여 관리
 - * 세부 분류: 광고, 건축, 예술/골동품,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반,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방송
- (영국 창조산업의 성장 잠재력 실현 과정) 1998년 이후 지속적 정책 지원에 힘입어 2007년 영국의 창조산업은 산업 구성 비율에서 세계 1위를 달성
 - 2007년 영국 GVA(Gross Value Added) 기준 6.4%를 차지(570억 파운드에 해당)
 -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창조산업의 GVA 기준 성장률은 연 5%로, 전체 경제의 GVA 성장률이 3%이라는 점에 비취볼 때 인상적인 성과를 시현
 - 특히,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과 전자책 출판의 경우 9%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임이고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성과분석 결과 1파운드의 투자가 50파운드의 매출액 증가
- (유럽 제국의 창조산업 규모) 2006년 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유럽의 창조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6,540억 유로에 달함
 - 여타 산업에 비해 12%대의 고성장을 보이고, 유럽 내에서는 총 560만명을 고용
- (창조산업 산출물 교역 규모) 2008년 기준 창조산업 산출물은 전체 세계 교역의 3.4%를 차지
 - 2008년 기준 총 수출액 5,920억 달러 (UNCTAD 2010)

-
- (경제위기와 창조산업)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불황 이전 창조산업의 성장률은 기타 산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첨단 기술과 디지털 소비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요를 유지
 - 영국의 경우 전통적 부문인 광고 부문에서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고용이 15% 감소한 반면, 첨단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6% 감소, 영화/방송 등의 경우 4% 감소에 그침
 - 디지털 소비재화한 비디오, 음악, 게임, TV 프로그램의 경우 불황 기간 중에도 안정적 수요를 유지(UNCTAD 2010)

 - (2010년 이후의 정책 대응) 2010년 이후 영국 정부는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Technology Strategy Board, National Film Review, Art Council England, Creative Industries Council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산업 지원 계획 진행 중

 - (주목할 만한 정책적 움직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는 창조산업 관련 협력을 위해 Nordic Green Paper를 준비중
 - 정책담당자들에게 지식 경제들 속에서 창조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향후 과제) 창조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사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실천적인 정책 방향을 공고하게 수립해야 함
 - 창조산업의 지원은 엄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혁신의 기본 조건은 다양성 : 산업과 예술계간의 협력을 포함한 전방위적 지식기반의 마련 및 활용을 추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창조산업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마련 및 운용 계획 수립도 필수 요인
 - 과학과 창의성의 융합을 위한 지원과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창조산업에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리더십이 필수
 - 정부/산업에서의 리더십 수준을 고양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